

“검은 대륙에 자비를”

동봉 스님,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 ·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기원

‘101 국토대장정’ 현장

“2006년 11월 30일, 날씨: 흐림. 40km를 행군했다. 행군하는 내내 <금강경>을 염했다. 갈증을 느끼고 발가락에 통증이 느껴질 때 마다 내가 직접 쓰고 낭독한 <고불문>의 내용을 되새김질 했다”

“2007년 1월 20일, 날씨: 흐린 후 비. 나는 오늘도 길에서 관세음보살님을 보고도 놓치고 말았다. 아!아!아! 아직도 눈뜬장님이란 말인가. (종락) 오토바이를 탄 젊은 노인이 “스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우실텐데 따뜻한 물 한잔 잡수시소~.” 하며 나에게 감로수를 건네고 출연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진 그 젊은노인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 하다.”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 발원지인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기원을 위해 2006년 11월 30일 ‘101일 국토대장정’에 오른 동봉 스님의 일기장. 장정 62일째인 1월 30일, 폭설경보가 발효 중임에도 불구하고 동봉 스님과 성재경 시인은 전남 강진을 지나 목포를 향해 강행군하고 있었다. 영하 10도의 혹한 속에서 계속해서 길을 걷고 있는 스님에게 대장정에 나선 이유를 물었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는 지금 부처님의 자비의 손길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사 직전에 처한 아이들과 이들도 모두 희귀병에 걸려 몸부림 치고 있는 수많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들에게는 부처님 법과 말씀 이전에 한 조각 빵과 페니실린 주사 한방이 더 절실합니다. 저의 이 같은 국토대장정의 작은 기도가 불자들의 큰 원력과 뜻을 함께해 아프리카에 희망과 자비의 한국불교를 전하고 싶습니다.”

아프리카는 지구상에서 아시아 다음으로 큰 대륙으로 53개 나라에 9억2400만 명이 살고 있다. 이 ‘검은 대륙’에 중국과 일본 등 열강들은 건설 사업을 비롯한 경제 개발에 엄청난 공력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2천년 동안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한국불교는 아직까지 아프리카에 단 한 발자국도 내딛지 않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아프리카를 다섯 차례 방문한 스님은 한국불교계의 아프리카 붐으로 알려져 있다. 스님은 또 현재 동아프리카 탄자니아 마운틴 킬리만자로 ‘한국문화아카데미 보리가람학교’ 교장을 맡고 있다. ‘보리가람’을 통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불교를 가르친다는 것. 보리가람 건립을 위해서는 총 4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번 국토대장정에는 불자뿐만 아니라 기업인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1월 15일 동봉 스님이 김해에 들렀을 때 태광산업(회장 박연재) 측은 5억원의 기금 전달을 약속하기도 했다. 기자가 인터뷰를 한날에도 뜻있는 불자 2명이 스님과 2박 3일 동안만이라도 뜻을 함께하고 싶다면 강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목포를 향해 걷고 있었다.

시간 날것 스님과 함께 5km를 걸었을까. 동봉 스님과 국토대장정을 함께하고 있는 자정 ‘스님이 영원한 도반’ 성재경 시인이 너털웃음을 지으며 자동차가 있는 곳으로

오라며 손짓한다. 성재경 시인은 지프차를 몰고 동봉 스님의 국토대장정을 에스코트하고 있다. 그의 지프차 안에는 노트북, 식기류, 이불, 구급약, 열프, 도서, 지도, 식수 등 온갖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만물상점을 방불케 하는 차안을 보고 넋을 잃은 기자에게 성 시인이 말했다. “국토대장정을 하면서 균형이나 시정에 들러 ‘101 국토대장정’을 홍보하기도 하고, 시골 5일장 등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곳에서는 즉석해서 시(詩)를 써 주거나 시 낭송을 하려면 필요한 물건들 이죠.” 2006년 12월 17일 강원도 강릉에서 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면서 시낭송 시낭송 가졌을 때는 가히 폭발적인 인기였다. “스님 시 낭송 감사합니다. 먼 길 떠나시는데 여비에 보태 주세요”라며 극구 3만원을 바라며 밀어 넣어주는 보살님 등등. 그간 있었던 해프닝들을 입담 좋은 성 시인에게 듣고 싶었더니 어느새 30분이 훌쩍 지났다. “아차” 싶어 연신



동봉 스님(오른쪽)과 성재경 시인이 대장정 일정 체크를 하는 모습.

걷고 있는 동봉 스님에게 달려갔다. “스님 대장정을 하면서 제일 힘든 점은 뭔가요?” “그야 사람들의 무관심이죠. 처음엔 발에 물집이 생겨서 걷는 게 힘들다가 나니 눈이 내려서 행군에 지장이 있을 때가 곤혹스러웠지만 육신의 고통보다는 사람들이 냉소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제일 힘듭니다.”

“스님. 이번 대장정이 끝나면 아프리카로 바로 떠나실 건가요?” “아니요. 올 중반부터 L.A부터 뉴욕까지 5000km 미국 대륙 횡단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의 아프리카 진출이라는 포교 원력을 전 세계에 알릴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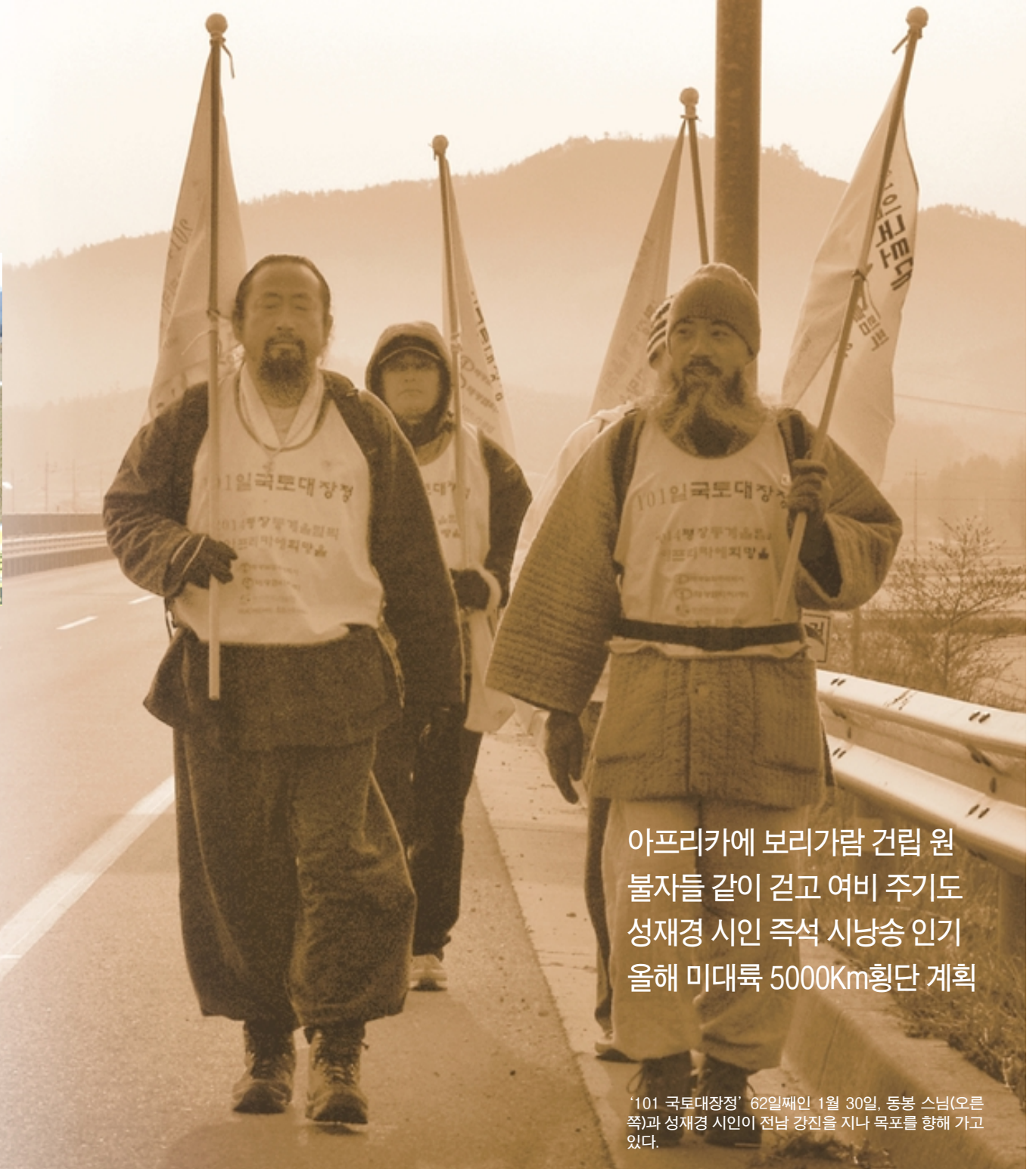
마음을 숙연하게 하는 원력 때문일까? 흐린 길을 걸으며 듣는 스님의 목소리는 힘차고 맑았다. “진정한 보시는 ‘잘 먹고 잘사는 사람에게 1000원을 주는 게 아니라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에게 1만원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리카에서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는 일은 아프리카 정부와 UN이 몫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몫이 아닐까요?”

강진/글 · 사친=노병철 기자



‘101일 국토대장정’ 일정

동봉 스님의 ‘101일 국토대장정’은 2006년 11월 30일 광주 우리절에서 출발해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와 경북-경남-전남-전북-충남-충북-경기도를 거쳐 파주 임진각에서 3월 30일 회향하는 101일간의 도보 여행이다. 하루 30-40km씩, 총 2719km를 걸으며, 매일 <금강경> <아미타경> <초발심자경문>을 독송한다. 숙박도 세간 이야기를 듣기 위해 민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프리카에 보리가람 건립 원불자들이 함께 걷고 여비 주기도 성재경 시인 즉석 시낭송 인기 올해 미대륙 5000Km 횡단 계획

‘101 국토대장정’ 62일째인 1월 30일, 동봉 스님(오른쪽)과 성재경 시인이 전남 강진을 지나 목포를 향해 가고 있다.

바로보인의 책들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자 / 지자

건강 대선사님의 인가계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자의 무명을 일깨우는 통쾌한 禪법문!



- 바로보인 전통목 전5권
-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록
- 바로보인 철부경
- 바로보인 금강경
- 바로보인 산심명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 바로보인 중도가
- 바로보인 선가귀감
- 바로보인 반야심경
- 바로보인 선문엄송 전30권 중 10권
- 영원한현실
-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세월을 복채로 세상을 복삼아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복산에 찻는 희다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5권!>

과학도 밝혀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심봉에서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건강대선사의 인가계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일체종지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선(禪) 법문 안내>

대원문재현 선사님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는 선가귀감 서울법회가 3월 4일 일요일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매일 첫째주 일요일 정기법회입니다. ☎ 02-522-0122

- 광주선원 ☎ 062-944-4088
- 선문연승 / 2월18일(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후 2시
- 부산선원 ☎ 051-545-2460
- 금강경 / 2월25일(매월 넷째주 일요일) 오후 3시